



감정평가사 불자회원들이 2월 14일 장호원 무량사에서 '살생과 자비'를 주제로 '좌담법회'를 열고 있다.

감정평가사불자회 첫 '좌담법회' 현장



둘러 앉아 佛法 배우니 '최고의 감정가'

2월 14일 경기도 장호원 무량사. 법회에 앞서 불자회원들이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스스로 불제자임을 재확인한다. 간단한 예식이 끝나자 불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상석에 장호원 무량사 주지 여초 스님이 좌정하고, 15명의 불자들이 그 주위로 원을 그린다. 그리고 이 어진 죽비 3성, 청빙가를 대신한다. 모두가 합장인사로 예를 표한다.

교리·수행법 등 주제로론 형식 법회 허심탄회한 분위기 공부·친목 '만점'

말 한 마디에도 그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살생이고, 반대로 기를 살려주는 것은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받아 적는 손놀림이 바빠진다. 여초 스님이 질문을 던진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침묵이 흐른다. "만 중생에 대한 사랑이 자비가 아닐까요? 이미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생각되는데..."(윤전수 부회장)

다. 그 이치를 알겠습니까?"(여초 스님) "네" 묻고 대답하기는 계속 이어진다. 3시간이 흘렀다. 이번엔 다뤄질 주제는 감정평가사 불자로서의 수행자세.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우리는 토지, 건물, 은행 담보 등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행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임학중 총무)

감불회의 좌담법회. 강의는 일방적인 법문 전달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 불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또 증명법사도 초빙된다. 초청된 스님은 논의가 끝나자 호르르하는 것을 잡아주며 법회의 밀도를 한층 높인다. 그렇다면, 감불회가 이런 방식의 법회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중이 자주 모여 불법에 대해서 논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불자회가 이런 방식의 법회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교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생각들을 제각각 풀어내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데에만 한 방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불자회는요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불자회

광주불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교세가 취약한 곳이라는 선입견은 더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갖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불자들이 '큰 일'을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50여 공무원 동반들이 드디어 뭉쳤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시청으로는 5번째로 우리 불자회가 결성돼 전국에 공무원 불자들의 신령 바람을 일으키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신령활동을 하겠다고 스스로들에게 다짐을 했었지요. 우선 우리 불자회는 지역 사회를 순례하는 법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는 백양사 사리진경장 및 천진암을 찾아 서운 큰 스님 사리를 진경하고, 2월에는 원효사에서 주지 현지 스님에게 감로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회가 창립한 지 3달 밖에 안 돼 많은 신령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말이지요? 때문에 우리 불자회는 올 해 알찬 계획을 세워 놓

'불교세 취약 지역 옛말 만들자' 서원 자치구 모임 결성으로 한발 더 나갈 터



'빛 고을' 광주에 공무원 불자회 깃발을 세운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올 한 해 펼칠 신령활동이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법회.

불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땀땀한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께 신령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법회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 원로위원이신 천운 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불자회 지도법사 현지 스님(광주사암연합회장), 승보연합회장 광민 스님을 비롯해 박광태 시장, 지역 신령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우리 불자회 창립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당시에 올랐던 창립발원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방사상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우리 시청 공무원 불자회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누시는 참뜻을 바르게 알고 일깨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받들겠습니다." 참으로 불자회원들의 신심은 간절했습니다. 창립이 늦은 만큼 더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만원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스텝리랑 성지순례 6일 티베트 성지순례 11일 수미산 순례 24일

추모공원 시설 전문업체 www.keskorea.net 한국인터넷주소:안치단 소규모 납골 안치단 "장묘도 하나의 예술" 소규모 납골당을 제안합니다. 소규모(500~100위)의 납골시설을 기존의 전각(명부전, 극락전, 지장전)에 설치하여 건축비 절감과 여기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00위까지 신고안으로 설치 가능) * 건축비가 필요없어 안정적인 납골당 운영 - 초기 투자비 절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을 한번에 *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 KES KOREA Knowledge Electro-Sign Service Co., Ltd. 본사 (032)666-1006 공장 (032)663-5479